대불련 「한국불교 1600년대회」 현장

"21세기 새날 열자" 한뜻 다짐

1천여 대학생 미륵사지 서탑서 천등장엄

풍물·노래한마당등 주민동참 '포교일조'

"희망과 모범으로 21세기 새날을 여는 대불련이 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가 지난1일부터 5일까지 미륵의 성지 전주에서 실시한 '제15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불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울·경기를 비롯 전국의 1백여개 대학에서 참석한 6백여 대학생 불자들은 전북대학교 교정 및 전북지역 일대에 법석을 마련해놓고 불심과 우정을 다졌다.

이번 대회에 동참한 대학생 불자들은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원력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무색케 했다.

첫날 전북대학교 교정에 모인 전국의 대불련 회원들은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탓에 서먹했던 대불련 회원들은 하루종일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 한마음 한뜻으로 저녁예불을 올리며 4박5일동안 불제자로서 용맹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청년불자들의 염불소리는 활기찬 한국불교의 앞날을 예견하듯이 힘에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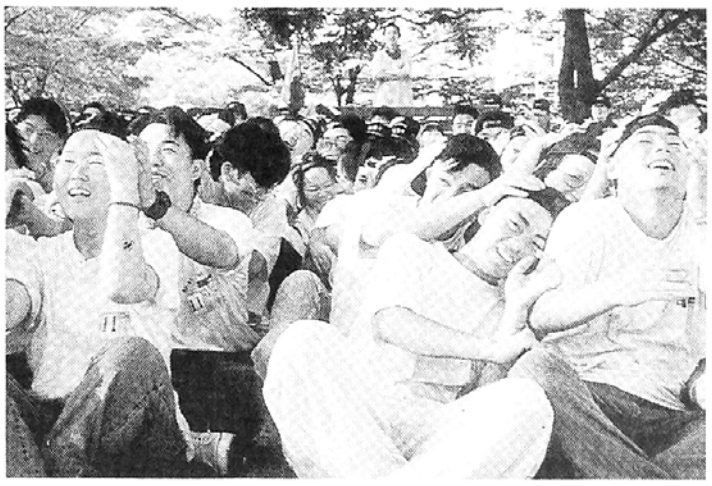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천등불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전주 송광사와 김제 금산사 순례에 이어 익산 미륵사지에 도착한 대학생 불자들은 백제인들의 염원이 서린 미륵사지 서탑앞에서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교바로세우기의 서원이 담긴 등을 달기 시작했다. 서탑이 천등으로 장엄돼자 승무를 통한 축원의식이 봉행됐고 대불련회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한국불교 1600년대회의 절정은 포교대회와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노래한마당. 풍물패를 앞세워 진행되는 포교대회는 대불련 회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의 참다움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노래한마당은 이번 대회가 대불련만이 아니라 지역불교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지역불교 발전에 일익을 하겠다는 원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다.

젊은 학생들이라서인지 제일 관심있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해도 대동놀이 시간. 전국의 각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설치하고 자신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나가돼 대불련으로의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인만큼 회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게다가 풍물패의 신명나는 공연이 곁들여져 대학생 불자들의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이밖에도 이번대회에서는 지선스님(전불련 상임의장),유정희씨(대불련 지도위원장)의 강의와 법등구미기, 토론회, 가요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중근 기자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불련 회원들은 희망과 모범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일궈갈 주체가 될 것을 서원했다.

"돌아가면 학교 선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는 박봉영씨(원광대 경영학과 3)는 "이번 대회를 통해 타지역회원들간의 유대강화와 신심함양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날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자자와 포살을 통해 "한국불교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더욱더 힘있는 전진과 수행을 통해 내가 할일을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4박5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며 대불련회원들은 "이제는 각 지역에서 용맹정진해 대불련이 한국불교의 명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김중근 기자

청교련 문화캠프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서울을 비롯 전국의 각 지부·지회 2백여명의 청소년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6 청소년문화캠프를 실시했다.

'가자! 문화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통악기배우기, 문화탐방, 음식문화배우기, 민속놀이 한마당, 의상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위덕대 첫 방학 신행 활발

마하자나학생회 수련대회 참가

교수·교직원등 수행프로 참석 열의

지난 3월 개교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첫 방학을 맞아 신행활동 열기로 가득차 있다.

개교년도 봉축불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위덕대의 신행활동은 지난 6월 13일 불교대학생회인 '마하바이로자나'가 창립법회를 갖고 임원진을 구성한데 이어 위덕대 전 교직원들도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개최하여 불교와 종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심을 고양하여 동체대비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대학생회 '마하바이로자나'는 방학중 임원회의를 자주 열어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마하바이로자나는 사무국과 연수원을 두고 또 회원 개인의 체질에 맞는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몇개의 전문활동반을 구성키로 했다. 현재 회원은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마하바이로자나 임원단및 10여명의 회원들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종조탄생지인 을릉도 금강원에서 진각종 청년회가 주최하는 수련대회에 참가하여 트레이닝을 겸할 계획이다.

불교종립대의 위상에 걸맞게 위덕대는 교수 23명 교직원 38명중 40여명이 신행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교직원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신심을 깊게하기 위해 정교실에서 주관하는 매월 월초불공에 참석, 불공수행하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위덕대 심인실(정교 덕일정사)에서 열리는 '기본수행법' 시간에도 30~40여명의 교직원이 무루 동참하고 있는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5월 한달동안 ASEM 경주유치운동을 벌여 위덕인의 공동체의식에 이바지한 바 있는 위덕대는 2학기에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인골프장반대서명운동등 불교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신행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편 위덕대 기획홍보담당관실이 최근 펴낸 정책자료집 '위덕인의 세계'에 따르면 위덕대 첫 신입생 4백명중 종교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한 3백87명 가운데 5%인 21명은 불만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전체의 95%가 설립재단에 대한 종교적 불만은 없다고 응답해 위덕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재단종교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덕대에는 현재 진각종 신앙학생 19명을 비롯하여 조계종등 타종단 1백34명등 1백53명의 불교신앙 학생이 있으며 개신교 33명 천주교 16명 기타 종교 9명 무교 1백76등의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김원우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반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 000원
■ 중보판 국반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 500원
※ 법보시 하실 사임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인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한국동로타리)

난치병 완치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100% 완치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스님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는 중생은 없는지요?
▲ 전국에 난치병을 완치한 자가 수천명에 달합니다.
▲ 온갖 방법 다 써도 실패 한 분

■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 한방 : (053)564-3355

대구 여래 한방

쉽고 재미있게 읽을수 있는 중급교리 반야 심경강의

최상의 지혜
석우스님 지음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것이 낫고 아는 것 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불자이면서도 아직 가슴 저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깨침이 오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깨달은 경험은 있으나 깨달은 바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관음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 720-1147~8

교직자 양성 전문 교육

제2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원(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강일시 : 1996년 9월 2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